



산자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제시

산업지원부(장관 이희범)는 바이오산업을 IT 이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BT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바이오업계 및 학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의약바이오(Red-BT) 및 산업바이오(White-BT)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발표회에 참여한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의약바이오 분야의 핵심유망 기술을 분석하여 거시적인 기술로드맵을 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생물공학회는 산업바이오 분야의 일부 산업 공정기술과 석유화학산업의 강점을 적극 활용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바이오산업 업계 현장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발굴한 BT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번 발표회에서 수렴된 바이오업계의 의견을 향후 바이오 산업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바이오산업의 도약에 대한 신화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발표회에서 수렴된 바이오업계의 의견을 향후 바이오 산업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바이오산업의 도약에 대한 신화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차세대 경제대국 인도와 투자·기술협력 본격화

산자부는 인도 상공부와 지난해 12월 21일 뉴델리에서 '제2차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해 양국 간의 투자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03년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 이후 2년여 만에 열린 이 회의를 계기로 BRICs의 하나이며, 풍부한 물적자원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고성장상을 시현한 인도와의 경제협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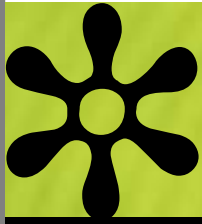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양국 간 투자촉진을 위한 국제전시 ▲기계·전력산업분야 등의 협력 강화방안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민간경제인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인도 상공부 내 한국투자기업 전담관을 지정·운영기로 함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인도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IT강국으로서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는 인도의 상호 공동이익을 위한 투자 및 기술협력이 확대되고, 그간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어온 양국 간 협력사업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산자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향후 인도 기술인력 채용박람회, 한·인도 기술 및 정보교류사업, 공동연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도 고급 기술인력의 국내 유치를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올해 청년채용패키지사업 2250명 취업 목표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2006 청년채용패키지사업에 129억원을 들여 4500명을 교육시켜 2250명(취업률 50%) 이상을 취업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의 첫 사업에서도 3194명(취업률 42.8%)을 취업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이 다른 실업사업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중소기업들의 채용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과 미취업자 양쪽의 수요에 부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의 취업률 50% 이상 달성을 위해 취업의지가 강한 연수생 및 우량업체 선발과 맞춤형 교육 실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탈률 저하 및 현장 연수를 제고를 위해서 연수생 선발에 있어 사전 면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이해교육 및 업체 탐방과 작업환경 불량업체를 배제시킬 계획이다. 또 사업당년도의 채용도 중요하지만 채용 후의 고용 유지도 매우 중요함에 따라 이 부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환경전문인력 2천명 양성

중기청은 각국의 제품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대비, 중소기업 스스로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대표적인 제품환경규제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및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등이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 상반기에 35회에 걸쳐 전국순회 교육을 실시해 2000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인증마크획득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제품환경규제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구성한 민·관 합동의 중소기업 환경규제합동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원기관 간 협력강화 및 대기업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 향상과 산업지원부, 환경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로 조기에 중소기업의 제품환경규제 대응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34.7%가 사회적 책임경영(CSR) 활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종사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2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CSR)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업체의 53.4%가 CSR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중인 업체는 34.7%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법령준수, 환경보호, 공정경쟁, 노동환경 개선, 지역 공헌 등이 대표적인 예로, 기업이 기본적인 경제적 생존을 추구하되 소비자·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까지도 포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꾀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CSR을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추진방식으로는 마케팅·캠페인 전략의 일환(34.0%)이 가장 많았으며, 장학회, 문화예술 등 후원활동(30.7%), 자원봉사 등 임직원참여(25.9%), 기부(9.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 CSR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금전적 자원부재(68.1%)에 이어 CSR 효과에 대한 의문(23.1%)을 다수 응답하고 있어 CSR의 성과를 검증해 널리 홍보하는 것이 향후 중소기업이 CSR을 추진케 하는 인센티브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CSR을 자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격 및 가이드라인의 정비·보급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출범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광구)이 지난해 12월 21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식기반경제시대 지적권 관련 연구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초대 원장에는 특허청장과 산업지원부 장관을 역임한 안광구 씨가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신진국의 대형 연구기관들이 종합적·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의 전략 마련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문연구기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지적권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던 지식재산연구원센터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내부 부서에 불과해 전문 연구기관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기존 지식재산연구원센터의 연구성과를 흡수하여, 신진국의 지식재산전략 연구를 통한 벤치마킹은 물론 후진국들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연구를 통해 지식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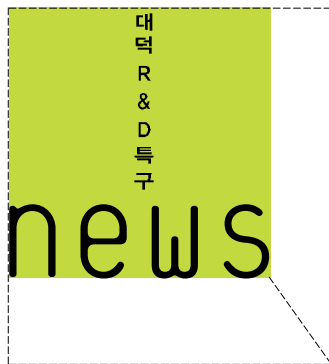
KOWWA 이렌서 수수료식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2005년도 KOWWA 이렌서 수수료식'을 가졌다.

2005년도 총 신청자 1477명 가운데 90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중 10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수료생 외에 이렌서에 관심이 있는 50여 명의 예비 이렌서들과 리츠칼튼 호텔 인사팀장, 한국맥도널드 인사팀장, Right consultant 대표이사 등 VIP 10여 명을 포함 총 160 명이 참석해 이렌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는 오후 6시 30분에 오프닝 교류의 장을 시작으로 오후 10시까지 열띤 토론과 특강을 통해 이렌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문화예술계 인사 20여 명 초청

중부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과학 현장을 찾았다. 자극에 민감한 예술인이 본 첨단과학 현장은 '그야말로 아이디어 창고'다.

지난해 12월 20일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과학

기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전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20여 명을 초청했다. 대전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이주미술관, 다현악회에 서 온 방문단은 한국화학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각각 방문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의약, 산업용 자재 등에 쓰이게 될 첨단기술을 미리 경험하고 화

인했다. 세계 최초로 건립된 화학물은행을 둘러본 이들은 화학물이 어떻게 보관되냐, 어떤 용도로 활용되냐 등 연구 전반에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또 신약을 만들기 위한 씨앗들을 양산·보관하고 있는 한국화학물은행에 직접 들어가 내부를 확인하고, 실험도구를 만지면서 첨단장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현재 화학물은행에는 매년 용도 없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화학물 15만여 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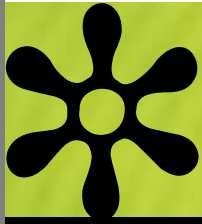
이어 바이오신약, 바이오소재, 미래융합기술 등 첨단생명공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했다. 인간게놈지도와 관련된 연구 현장을 둘러본 방문단은 세포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원자현미경으로 본 세포의 모습이 예쁘다, 바이오칩은 그대로 전시해도 될 정도다 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제5회 대구첨단벤처기업 인대회 개최

대구·경북지역 첨단벤처기업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인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첨단벤처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제5회 대구첨단벤처기업

인대회가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회장 박용일)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4시 대구 J's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병일 대구시 정부부시장, 연합회 박용일 회장,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기업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하 가운데 진행되었다. 벤처기업 임직원 장기자랑이 식전행사로 열렸고, 시상식에서 차세대 네비게이션 생산업체인 이백스(대표 박강석)가 최우수벤처기업, 산업용 로봇 생산업체인 이진기(대표 김인환)가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5개 업체가 각종 벤처기업상을 수상했다.

이올리 지역 내 벤처기업들에게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간 정보교류 및 판매촉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품전시회(총 14개 업체)가 열렸다.

vd scrap

“대기업이 벤처투자 해달라”

노태통령 대기업-중소 상생간담회서 당부

정부-대기업, 중기 신기술개발 구해 확대

노태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태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2005년 12월 23일 파이낸셜뉴스 1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노대통령이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하면 벤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당부했다는 것을 보도한 기사

▶ 2005년 12월 15일 전자신문 19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벤처기업 자격 깎깐해진다

통기협, 내년 4월부터 투자액 5000만원 하향조정 확정

내년 4월부터 정부의 벤처기업 투자액 기준이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통기협은 “벤처기업의 투자액 기준을 5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기협은 “벤처기업의 투자액 기준을 5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기협은 “벤처기업의 투자액 기준을 5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05년 12월 20일 헤럴드경제 13면
4월부터 정부의 벤처기업 확인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벤처확인제도 변경안을 보도한 기사.

시중銀, 벤처 투자 ‘다시 꿈틀’

우리·국민 혁신형중소 상생론 내다

국책은행들도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우리은행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